

달서구 -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, 업무협약 체결

달서구는 지난 2일(화) 구청 5층 회의실에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(단장 김범준)과 폐교한 신당중학교 본관 1층에 ‘(가칭)디지털 창작센터 장비 및 콘텐츠 구축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협약식에는 이태훈 구청장, 김범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, 장대진 산학인재원장, 정정용 산학인재원 팀장 및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.

이날 협약식은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‘신당중폐교 (가칭)디지털창작센터 장비 및 콘텐츠’를 구축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



인 사업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주요 협약 내용은 센터 내 체험·교육·제작 장비와 주요 콘텐츠의 기획 및 성공적 구축, 자료·정보의 상호 공유, 각 기관 보유한 역량 및

인프라의 활용과 지원, 달서구의 ‘2024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’의 성공적 추진 등이다.

이태훈 구청장은 “디지털 대전환이 화두인 요즘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

수 있도록 각종 생활SOC시설에 디지털 기술을 입히고, 디지털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활기차고 창의적 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”라고 말했다.

김범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도 “달서구와의 협력

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, 디지털 창작센터가 주민과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및 창작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

이세경 객원기자

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본 적 있나요?

엄마의 기차여행

생애 가장 특별한 여행이 찾아옵니다

CHANNEL J

푸른방송 디지털 케이블 123, 케이블 57-1

국민연금 Q&A

Q.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,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
A.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용자입니다.

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(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사용자 제외)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8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때,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%까지 지원됩니다.

* [재산기준]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
[소득기준] 종합소득연간합이 4,300만 원 이상

예를 들어,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%인 18만 원이며,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%씩(9만 원) 부담해야 합니다.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,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80%를 지원받게 되어 각각 1만 8,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.

다만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.

*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근로자

국민연금 대구지사 / 국번없이 1355

우리동네 구성구성, 크고 작은 소식들이 살아있는 곳!

지역민을 위한 푸른방송 ch1

우리동네 푸른방송 CS 푸른방송

제보 및 가입 A/S 551-2000